

보성군 조성리 발굴 마한시대 제사 유적 첫 선 보인다

12일 국가유산 지정 학술대회서 대목의례·입대목 첫 공개 국내외 전문가들 주제 발표·토론...유네스코 유적 등재 추진

보성 조성리 유적 중 마한시대 제사를 지낸 장소로 보이는 유적이 최초로 공개된다.

오는 12일 보성군 조성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보성 조성리유적의 국가 유산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보성군과 대한문화재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보성 조성리유적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성리 유적의 가치에 대해 열린 토론을 펼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금까지 발견된 조성리 유적 중 제의 장소로, 사람과 신을 잇는 대목(大木)의례와 입대목으로 추정되는 주공(구멍) 등이 최초로 공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성군과 대한문화재연구원은 학술대회를 통해 전남 동부에 분포한 여타 유적들과 구별되는 '보성 조성리유적'의 가치를 전달하고, 보존 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방어·분묘·수리시설 관련 복합유적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하고 마한문화의 수습적 성격을 확인해 학계와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전남에 분포된 마한 유적과 연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학술대회는 현장 등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6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첫번째 주제발표는 대한문화재연구원의 문예연구원이 '조성리유적의 발굴 조사 성과와 의미'에 대해 발표하고, 두 번째는 이동희 인제대 교수가 '전남 동부지역의 마한 소국'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를 밝힌다.

이어 일본 코마자와대학 테라마에 나오토 교수의 '일본 1-5세기 고지성 취락의 특징', 한옥민 대한문화재연구원 연구교수의 '보성 조성리 유적을 통해

본 마한의 의례'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다음으로 이범기 세계문화유산연구재단 원장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과 보성의 마한 유산 현황 및 활용 방안', 일본 돗토리현 아오야카미치 역사공원의 공무원인 카와이 노리유키씨의 '일본 취락유적의 보존 및 활용'의 발표가 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서울대학교 권영호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와 토론자 간에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 조사 사업으로 조성리 마한 유적을 발굴하고 있다"면서 "조성리유적의 가치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대문헌인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는 마한 소국의 '소도'에 관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 소도에서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단 시설물인 '입대목현령'을 중심으로 의례행위를 행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마한의 제의 장소가 보성 조성리 유적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보성 조성리 유적 중 마한시대 제사를 지낸 장소로 보이는 유적이 공개된다. 보성 조성리 유적 발굴 현장.

순천만 농주 갯벌 내년 3월까지 칠면초 군락지 복원

로타리클럽과 함께 씨앗 살포 시작 토양 안정화·침식 방지 효과 기대

순천시가 내년 3월까지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내 순천만 농주 갯벌에 칠면초 식생 복원사업을 시행한다.

순천 제4지역 로타리클럽의 제안으로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순천만 칠면초 식생 복원사업은 로타리클럽 국제기금을 통해 90kg의 칠면초와 통통마디 씨앗을 살포하여 칠면초 군락지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첫날인 7일 순천만 농주 갯벌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순천제4지역 로타리클럽 회원들과 순천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염생식물의 생태적 역할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칠면초 씨앗을 살포하며 순천만 갯벌 생태계 복원 의지를 다졌다.

이번 사업은 순천만이 블루카본 저장소로서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여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고,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갯벌 토양 안정화 및 침식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가 순천만 농주갯벌에 칠면초 식생복원사업을 시행한다. 갯벌에 칠면초 씨앗을 살포하고 안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행사에 참석한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시와 로타리클럽의 협력은 지역사회가 환경 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민간 차원에서 유사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중앙로타리클럽 관계자는 "시와 협력해 지속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파종을 통해 갯벌 식생복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 풍덕동 취약계층 45가구 난방용품 제공

'HOT!한 겨울나기 지원사업'...독거노인 등 안부 모니터링도



순천시 풍덕동행정복지센터가 겨울철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HOT!한 겨울나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풍덕동 행정복지센터가 겨울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풍덕동 HOT!한 겨울나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여름 시행했던 '풍덕동 HOT!한 겨울나기 지원'의 후속사업으로, 훨씬 추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올 겨울에 격정되는 홀몸노인·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만성질환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가구별 전수조사를 거쳐 선정된 45가구를 대상으로 난방용품 등유·전기매트·겨울용 침구·순간온수기 등을 지원하고 안부를 살피는 모니터링을 함께 실시한다.

또한, 갑작스러운 추위로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 한랭질환의 위험성이 커지므로 심뇌혈관질환자, 당뇨 및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과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각별히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지원은 그동안 복지사각지대 없는 풍덕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풍덕동마을보장협의체 등 직능단체가 협력하여 더욱 의미가 있다.

난방용품 등유를 지원받은 한 어르신은 "이맘때면 난방비용 걱정으로 추위에 오늘도 떨며 견뎌왔는데 덕분에 벌써 몸과 마음 모두 따뜻하고 행복하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에 절전·자동점검형 스마트 가로등 설치

내년 1월부터 10억여원 투입

광양시가 내년부터 절전형·자동점검형 가로등 시스템을 도로변에 설치한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사업에 도로변 가로등 양방향 디밍제어 시스템 설치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도로변 가로등 양방향 디밍제어 시스템'은 도

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의 조도를 제어해 전기 사용량을 절감하고, 실시간 가로등 점·소등 상태 감시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광양시는 지난 1월 양방향 디밍 제어 시스템 설치사업 추진 사업계획서를 전남도에 제출했으며, 최종 선정돼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8월까지 사업비 총 10억원(국비 4억

원, 시비 6억 원)을 투입해 2500여개 가로등에 디밍 제어기·컨버터·점멸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가로등 양방향 디밍제어 시스템 사업이 완료되면 심야 시간대 전기 사용량 감소로 전기요금도 절감되며, 실시간 가로등 상태 감시로 신속한 보수가 이뤄져 가로등 소등에 따른 주민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호 광양시 시설관리과장은 "가로등 양방향 디밍제어 시스템 설치사업을 빠른 시일 내 완료해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차량 운전자와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올해의 10대 뉴스' 뽑아주세요

15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광양시가 올 한해 광양시를 빛내고 가장 관심을 끌었던 '2024년 올해의 10대 뉴스'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10대 뉴스' 설문조사는 올해 광양시의 주요 시책과 현안 사업 중 이목을 끈 10개 뉴스를 선정하는 것이다.

설문조사는 지난 6일부터 시작해 오는 15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광양시청 홈페이지를 경유해 네이버폼(<https://naver.me/GNWhMFNF>)에

접속하거나 광양시 SNS(블로그, 카카오톡 등)에서 링크를 눌러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해 설문문에 참여할 수 있다. 설문 항목은 총 20개이며, 설문 참여자는 사전에 부서 의견을 취합해 만든 20개 뉴스 중 5개 뉴스를 선택할 수 있다. 광양시는 설문조사 득표수가 높은 10건의 뉴스를 '올해의 10대 뉴스'로 선정할 계획이며, 오는 18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최종 선정된 10대 뉴스 관련 사진 전시회는 오는 26일부터 시청 1층 현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군 연합청년회 저소득가정 33가구에 생필품 박스



곡성군 연합청년회가 지난 4일 관내 저소득가정 33가구에 550만원 상당의 생필품 박스를 기탁했다. 기탁품은 듀유·참차리면 등 생활필수품 세트이다. <곡성군 제공>

스마트관광 통합앱 '여수엔' 할인 이벤트

출시 2주년 기념 행사... 22일까지

여수시가 스마트관광 통합앱 '여수엔' 출시 2주년을 맞아 할인쿠폰 이벤트를 오는 22일까지 개최한다.

이용자는 '여수엔' 앱에서 음식점·숙소·유료 관광지 등 사전 예약 시 결제장에서 자동 발급된 쿠폰을 사용해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의 할인 혜택은 ▲음식점·특산품 20% ▲관광지·숙소·렌터카 각 1회 1만원 ▲집배

서비스 50%다. '여수엔'은 여수의 관광지·숙소·음식점·편의시설·교통안내 등 관광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바일 앱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사전 예약 및 비대면 현장 주문·간편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엔 출시 2주년을 기념하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며 "할인 이벤트와 함께 가족, 친구, 연인과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앞으로도 많은 이용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우리처럼 봉사단 순천 향동 소외계층 연탄 나눔

사단법인 우리처럼 봉사단(회장차성환)이 연말을 맞아 지난 7일 순천시 향동 일원에서 소외계층 가정에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올해 3년째 이날 봉사활동에 순천SOS어린이 마을과 순천 남산초등학교 야구부 학생들, 일반 시민 봉사활동가 등 40여명이 참여해 1300장의 연탄을 어려운 이웃 4가구에 배달했다.

사단법인 우리처럼 봉사단은 지역사회 변화를 꿈꾸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단체로 봉



사를 통해 소외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집수리, EM 흙굴 던지기, 소외계층 아동들과의 라이딩 봉사, 플로깅 봉사 등 지역사회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순수 봉사단체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8